

2017년도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7. 10. 12(목)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2017년도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62작품으로, 초연부문 44작품, 재연부문 18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또한, 우리 창작음악의 해외진출에 있어 현지의 수요가 많은 국악기 협연, 창작곡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관악기 협주곡을 우대사항으로 염두에 두었다.

먼저 무엇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 대학생부터, 80대 원로 작곡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곡가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 전체적인 지원 작품들의 작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실험주의 보다는 우리 것을 소재로 하여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의 작품이 많았으며, 전통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솔로악기들과 관현악의 만남도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현악기법에 의존하고 있는 점, 특히 전통악기가 반주 역할로 존재하는 축소지향적인 관현악기법 등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곡의 전개과정에서 절정을 향해 가는 작곡 테크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안타까웠다.

작은 음, 음향이나 배경을 형성하는 감성적 이미지 군들에 치우쳐 음악의 전체적 완성을 등한시하기 보다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유와 사고를 통한 작곡가의 고민이 드러난,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를 청한다.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